

일제 말 지방 유림의 지형과 한시에 드러난 동양론 연구

안변(安邊) 유림의 『황군위문시(皇軍慰問詩)』를 중심으로

한길로*

요 약

『황군위문시』는 1938년 중일전쟁에 참전 중인 황군을 격려하고 이들의 승전을 기원하기 위해 함경남도 안변 유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순한문 시집이다. 책에는 안변 유림 소속 유림 69명이 작성한 칠언율시 69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를 수록한 유림의 상당수는 군수·도평의원·면장·면협의원 및 학평의원 등에 소속되었던 경력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지역에서 금융조합, 수리조합, 과물(果物)조합 등 지역의 각종 조합에 관여하고 있던 지역 유지나 유력자 상당수 역시 안변 유림의 이름으로 시를 창작했다. 이는 일제 말 지방 유림의 지형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20년대 이후 총동원시기까지 지역의 유림은 도지사, 군수 등 총독부 관료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지역 관료의 임명에 따라 향교에서의 교임을 맡을 수 있었다. 과거 유림은 지역에서 명망있는 가문이나 유교적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축이었으나, 당시 유림은 유림으로서의 자격이나 소양보다는 관료의 측근으로서 일제가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적으로 임하거나 행정 능력을 구비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전통시대 유림이나 향교 운영주체들의 인적구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유림의 인적 구성의 변화는 한문학 창작 계층 및 경향에도 변화를 가지고 왔다. 즉 전통시대 한시가 갖는 미학적 특징이나 수사적 경향 등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계층들이 유림의 이름으로 한문학 창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시는 한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보다는 ‘일제 협력의지 표출’, ‘전통 사회에 대한 복고의식’, ‘한자 문화의 권위에 편승’ 등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남긴 『황군위문시』는 ‘일본어-국문’이라는 이중 글쓰기 지형을 보인 조선 문단의 측면과 주변의 문학으로서, 일제 말에 창작된 친일한시의 일면을 웅변하고 있다.

주제어: 일제강점기, 『황군위문시』, 친일한시, 친일유림, 총동원시기

* 동국대학교 국문학 전공, 박사과정.

I. 서론

본고는 중일전쟁에서 일제 승전을 기원하며 함경남도 안변(安邊) 유림이 작성하고 발간한 『황군위문시(皇軍慰問詩)』(1938)를 중심으로 일제 말 전쟁 총동원시기 지역 유림의 인적구성과 그들의 한시에 드러난 내면을 살피는 논문이다. 지금까지의 일제 하 친일 유림의 형성과 인적구성이나 일제 협력 활동 및 협력논리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일제가 성균관을 개편하여 자신들의 식민통치기구로 삼은 경학원(經學院)과 문화통치기가 시작된 20년대 이후 결성된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1919)-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1920)와 같은 친일유림단체, 그리고 일제 말 최대의 전국적 유림단체인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 1939)의 활동과 인적구성 및 친일화 된 유가이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더불어 문학계에서는 이들 가운데 친일 유림으로 알려진 여규형(呂圭亨, 1848~1921) · 최영년(崔永年, 1856~1935) · 정만조(鄭萬朝, 1858~1936) · 장지연(張志淵, 1864~1921) · 박영철(朴榮喆, 1879~1939)의 한시에 관한 연구와 함께 친일 유림단체가 발간한 한시집의 문학적 특성이나 이들이 내세운 일제찬양의 유가 논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¹⁾

필자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총동원시기 일제 하 지방 유림의 인적구성에 드러난 당시 지방 유림의 지형과 이들의 일제 협력논리와 내적근거를 담고 있는 한시 작품을 살피려 한다. 그동안 친일유림에 대한 논의에서 서울·경기 중심이 아닌 지방 유림의 친일협력 활동과 인적구성, 그리고 그들과 각 지역사회간의 관계망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남긴 한문학 작품 역시 그 동안 진행된 ‘친일문학’ 담론에서나 ‘일제 하 한문학의 대응 담론’에서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안변 유림이 중일전쟁에서의 일제 승전을 기원하며 자발적으로 편찬한 친일한시집인 『황군위문시』에 시를 기재한 자들의 인적 구성을 살펴

1) 기존 연구 검토는 한길로(2012)와 한길로(2013)를 참조할 것.

본다면 일제의 유림 통제 정책으로 어떠한 인물들이 전통시대의 유림을 대체하였으며 또 지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일면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들이 남긴 한시에 드러난 주요 특성들을 분석해보면, 이 시기 유림계 내부에 투영된 일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 유교이념의 면모를 살필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한시가 갖는 한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함남 안변과 이들의 『황군위문시』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안변 유림에 관한 기사가 『매일신보』, 『동아일보』, 『개벽』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급되면서 유림계의 분열상이나 친일로 전향된 유가이념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일전쟁 이후 일제 패망전까지 결성된 허다한 유림단체 가운데 지방 유림의 일제 협력활동과 인적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특성도 보여준다. 경학원을 중심으로 발간된 『성전성시집(聖戰誠詩集)』(1937)이나 조선유도연합회의 『축징병제실시(祝徵兵制實施)』(1943)²⁾와 같은 시집들은 중앙에서의 기획과 지방에서의 참여 및 매일신보사의 협조로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시집은 순수 지역유림의 힘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또한 특이점을 갖는다.

『황군위문시』³⁾는 1938년(소화12년 2월 10일)에 발간되었으며 저작 겸 발행자는 김유진(金裕鎭), 발행은 안변향교(安邊鄕校), 인쇄소는 신고산인쇄소(新高山印刷所)로 책에는 총 69명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고 모두 칠언율시로 작성되어 있다. 김유진이 서문을 작성했으며 책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그는 안변군유림대표로 안변향교 문묘직원(文廟直員)이었다.⁴⁾ 이들은 이에 그치

2) 이 두 책에 관한 자세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9)와 한길로(2012)를 참조할 것.

3)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전남유림들이 이와 유사한 시집을 발간했다고 한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전남유림 역시 1937년 『황군위문시』를 발간하였다고 전하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 책의 실존 여부가 불명하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전남 유림의 “황군위문시”에 대한 언급은 생략했음을 밝힌다. (“全南儒林有志들이 皇軍慰問詩集發行”(37/10/10, 3) “全南道內儒林有志는 皇軍慰問詩集으로 順朝鮮式表裝 李産業部長의 序文을 添附하여 만들었다. 近近皇軍將兵에게 보내어 銃後の 赤誠을 披露하기로 되었다.”

4) 김유진(金裕鎭, ?~?): 그는 안변금융조합에 가입하고 있었고 후에 안변군 신모면장(新茅面長)

지 않고 지역 내 유림을 규합하여, “장개석씨는 무고한 백성을 죽이지 말고 속히 제국에 항복” 하라는 ‘항복촉구서신(促降書)’을 들고 상경 한 뒤 조선 신궁을 참배하는 한편 ‘선만국경유림연맹회(鮮滿國境儒林聯盟會)’ 조직에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일제 당국을 감격시키기도 했다(매일신보 38/06/25, 3).⁵⁾

아래에서는 먼저 이 시집에 한시를 수록한 69명 유림들의 인적구성을 통해 당시 지역 유림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지역 유림의 영향력과 지위에 대해 살피는 한편 이들이 남긴 시들 속에 드러난 문명관과 일제찬양 논리를 통해 당시 일제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유림의 시선에 비친 동양은 어떠한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II. 일제강점기 안변 유림의 성격 및 인적 구성, 그리고 한문학의 지형

1919년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라는 이름의 ‘민족분열정책’으로 조선을 통치하기기에 이르는데, 이 시기 일제는 경학원(經學院)과는 별도의 친일유림 단체를 조직하여 유림계 포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즉 자발성을 명분으로 지역단위 친일유림단체를 조직하게 함으로써 지역에서 명망있는 유림의 전향을 도모하고 항일유림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된 것이다(정옥재 2008, 90). 이러한 시도 이후 유림계 내부는 신진 유림 집단과 기존의 유림집단간의 분열양상을 띠게 되고 향교 재산 운영과 유림으로서의 자격을 두고 많은 분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유림의 분열 및 관제화와 어용화가 속도를 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안변은

과 안변군학교평의원 등을 역임하는 등 안변군 신묘면 일대에서 지역 유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 유림으로도 참여했다. 자세한 것은 후면 [표 1] 참조.

5) 후일 오랫동안 안변 유림을 이끌며 이를 주도한 안변유림연합회장 최달빈(崔達斌)이 정례면회일(定例面會日)에 직접 미나미 총독을 만나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崔達斌의 勞苦를 南總督이 犒慰”, (38/10/01, 1)

이러한 친일유림단체가 조직됨으로써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잘 보여주는 지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각종 언론에 안변 지역의 유림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친일유림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한 1920년대가 기점인데, 이는 이 시기 이후 안변 유림의 내부 지형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 이들과 관련된 당시 기사의 상당수가 유림의 내부 분란과 관계 있는데 그 핵심에는 친일유림단체인 ‘유도진흥회안변지부’의 설치와 연관되어 있다(동아일보 20/05/06, 4). 즉 관제화된 친일유림단체가 결성됨에 따라 기존 유림과의 대립이 공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먼저 당시 안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개벽』 기사를 살펴보자

“사회라고는 아무리 산읍이지마는 넘우나 한심하다. 쏘조선이 뒤끌어
 품미하는 己未運動 당시에도 꿈적한 일이 었는 것을 보아서도 인심을
 짐작할 수 잇지마는 340여 호의 읍내에는 脾胃쫓게 청년회 간판을 4년
 동안이나 그냥 붙쳐둔 것도 可憎하거이와 醉生夢死로 그냥 마치라는 셈
 인지 노소를 물을 것 었시 노상에 방황하는 자는 반수 이상이 紅面兒이
 다. 그 바람에 釀酒회사(읍내 2개소)의 경기는 매우 조타. 그 우에 남들이
 신문, 잡지 보는 대신으로 碁博을 일삼는 것이 상례가 된 모양이다. 안변
 인사 그대들의 사회가 그러케 萎靡 부패한 결과로 저 일군의 魔物 崔達
 斌이가 횡행 蹂躪함이 아니냐.” (개벽54호 1924, 91-93)

『개벽』의 기사에 의하면 과거로부터 안변 지역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쉽게 동요되지 않았고 시국과는 다소 거리가 둔 모습으로 묘사된다. 문제는 『개벽』에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고착화 시키는 인물로 지목

6) 당시 대표적인 친일유림단체로 “유도진흥회”를 들 수 있다. 1920년에 결성된 유도진흥회는 “유도를 진흥하여 퇴미한 유풍을 되살리고 동양도덕의 진원을 발휘하여 민심의 안정을 꾀하고 국가의 진운에 바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조선총독부에서 수백 원의 자금을 보조해 창립한 관제 유림단체였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김영한(金榮漢)이 초대회장을 지냈다(민족문제연구소 2004).

한 최달빈(崔達斌)이라는 자가 당시 안변 유림계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다.⁷⁾ 최달빈⁸⁾은 1920년대 안변 지역 유림의 지형을 바꾸어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함남 북청(北靑)군수를 지내고 대동학회⁹⁾ 등에 참여한 그는 1920년대 유도진흥회 안변지부를 세우면서 유림계의 혼란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매체의 여러 보도들은 이들의 갈등 양상을 잘 보여주는데, 『매일신보』에 따르면 ‘유도진흥회 지부장 최달빈이 자의로 유사(有司) 및 장의(掌議)를 임명하고 향교 행사를 유도진흥회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기존의 문묘직원 및 유생일동을 무시하면서까지 향교를 지배하려 하려 한다’는 이유로 군내 유생 백여 명이 향교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운동을 시작으로 갈등이 표면화된다. 기존 유림들은 유도진흥회 본부에도 강한 불만을 보이며 “儒教振興會京城本部에서 文廟內에 支部를 設置케 아

7) 최달빈에 대해 『개벽』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그자는 巫卜出身으로 권문에 아첨하며 一進會를 이용하여 北靑군수 安邊군수를 지냈다. 그러나 恩賜金(舊韓國) 勳령사건으로 6년 감옥살이를 하고도 아직 未足한지 儒道振興, 國民協會의 회장이란 간판을 붙치고 사악이 날로 심하다.” (92쪽)

8) 최달빈(?~?): 북청군수(1907), 대동학회(1908), 유도진흥회안변지부장(1920), 조선유도사(朝鮮儒道社)안변향교진흥회(1924), 선만국경유림련연합회(鮮滿國境儒林聯合會)(1938), 명륜전문학원평의원(1939) 등을 역임했다.(민족문제연구소 2008, 692) 참고로 『황군위문시』에 수록된 그의 시는 다음과 같다.(4쪽)

멀리 황군 향해 절하며 칙문 올리니	遙拜皇軍奉敕文
떨치는 충성에 흘리는 감동의 눈물 임금 생각 곱절이네	奮忠感泣倍思君
저 의롭지 못한 무리 응징함을 어찌 그치랴	膺懲豈止無其義
장차 떨칠 그 위력 결코 나눌 수 없으리라	威力將施不可分
남경 땅 마른 하늘 날벼락처럼 마땅히 밟았는데	南京應踏晴天霹
상해의 땅구름 어느 날 따스한 햇빛 들일소나	上海幾承曝地雲
개천가 부르며 흙먼지 일소하며 돌아오는 날	凱歌捲土掃來日
유가의 무리 먼저 기뻐하길 바랄 뿐이노라	但願先喻曲阜群

9) 일제의 기획에 의해 최초로 결성된 친일유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동학회(大同學會, 1909)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문신에서 대한제국 관료출신으로 사회적 명망이나 유학적 소양이 상당했던 인물들이 있다. 예를 들면 대동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신기선(申箕禧, 1815~1909)은 학부대신 출신으로 단재 신채호를 이끌어 낸 인물이었고 부회장인 벽초 홍명희의 조부인 홍승목(洪承穆, 1847~?) 역시 대사성 출신이었으며, 박규수(朴珪壽, 1807~1876)의 문자로 김홍집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지낸 김윤식(金允植, 1835~1922) 역시 유학적 소양으로 당대 명성을 높였던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대동학회에는 이들 외에도 유교적 소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친일성향의 관료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민족문제연구소 2004).

니하고 儒生의 推薦도 無히 崔達斌에게 支部長을 任命하야 鄉校를 支配하려 한다”는 점 역시 강하게 반대하였다(매일신보 20/05/27, 4). 이들의 사례를 보면, 조선유도회의 지부장 선임과정에서 지역 유림의 추천도 전무했고, 지부를 향교 외부에 두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제는 친일단체를 통해 기존 세력과는 다른 새로운 유림을 조직하려 하였고 대중과 가까운 외부를 중심으로 하는 유림 조직을 구성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기존 유림(舊鄕) 가운데 박만형(朴萬亨) 등이 최달빈에 반발하여 유도진흥회학성지부(儒道振興會鶴城支部)를 만들어 이에 대항하면서 그 분쟁이 더욱 격화되어 당시 군수 김서규(金瑞圭)까지 나서 이를 중재하려다 실패하기까지 했다(매일신보 20/08/02, 4). 후에도 이들간의 분쟁은 이어져 24년에는 마침내 물리적 사태로까지 번져 경찰이 출동하여 3명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매일신보 24/09/09, 3) 후에 안변 지역에는 또 다른 친일단체인 대동사문화¹⁰⁾까지 개입하게 되어 더욱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되게 된다. 즉 친일유림단체간의 경쟁으로 유림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실망이 더욱 고조된 것이다. 이에 『동아일보』는 ‘안변 유림의 운명이 다했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咸南安邊郡에서는 儒家主義로 社會敎化를 目的한다는 儒道振興會의 支會와 大東斯文會의 支部라는 團體가 잇섯스나 大東斯文會支部는 存在를 차츰수 업게 되고 儒道振興會支部에도 內訌이 極甚한 模樣인데 一部慷慨之士들은 改革을 圖하랴고 陰八月七日上伍十二時부터 鄉校內에서 儒林總會를 開催한다고(동아일보 24/09/10, 3)

10) 대동사문화(大同斯文會, 1920)는 ‘친일 신념화’가 입회의 큰 조건이 될 정도로 친일화 되어 있었다. 물론 정만조(鄭萬朝, 1858~1936)나 어윤적(魚允迪, 1868~1935) 경우처럼 이름이 알려진 자들이 전면에 있었지만, 이미 그들은 친일로 기울어져 있었고, 조직의 기저에는 많은 기부금을 내고 유림 행세를 하고자 했던 ‘위유(僞儒)’나 부유(腐儒)가 상당했다(강동진 1980, 227).

위처럼 총독부의 친일화정책에 따라 당국이 지방 향교 재산 및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친일유림단체간의 세력 다툼 및 분란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자 기존 유림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여론 또한 고조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¹¹⁾ 특히 지역 유림계에서는 과거 지역 사회의 권위적 상징이었던 향교 재산과 운영에 대한 권리를 지역 유림 스스로 갖지 못하고 지역 관리나 친일유림단체 본부에서 임의 임명한 대리인이 장악하게 됨으로써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¹²⁾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 강점 하 안변 유림은 다른 유림처럼 많은 분규를 거쳤고, 그 분규의 표면적 원인은 ‘친일 유림단체의 결성으로 인한 세력싸움’, ‘향교 재산과 운영’의 문제였으나 이는 ‘유림의 관변화를 통한 지역 사회 지도세력의 재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 상징적 의미의 중심에 ‘향교’라는 공간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향교는 1911년 조선총독부의 문묘직원규정에 의하여 문묘직원(文廟職員)을 명예직으로 두어 부윤(府尹) 혹은 군수 감독하에 두고 문묘를 지키고 서무(庶務)에 임하게 했다. 지역 관료들은 이 일을 주로 면장이나 지역 유지가 담당케함으로써 향교를 총독부가 원하는 사회교화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었다. 즉 향교의 상징성이 일제의 교화기구로 전락되

11) 이후, 1927년 지역유지와 유림이 연합한 “안변유림구락부(安邊儒林俱樂部)”(중외일보 27/05/20, 4)가 결성되기도 했지만 각기 단체간의 반목은 더욱 끊이지 않아 당국의 우려까지 낳을 지경이었다. 결국 1929년 ‘분쟁이 끊이지 않을 바에 각자 해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 유림단체였던 ‘대동사문화’와 ‘유도진흥회’ 양측은 모두 군당국에 ‘해산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산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게 된다(매일신보 29/04/23, 5).

12) 이와 같은 예는 다른 지방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 전북 고창의 “향교재산 부정사용”으로 인한 노소(老少)유림들간의 분규(동아일보 23/03/13, 3), 서원재산을 둘러싼 밀양 유림의 법정 다툼(조선중앙일보 33/04/16, 3), 유림회 간부들간의 고소로 이어진 황해도 황주에서의 분규(중외일보 28/04/02, 2), 함남 문천(文川)에서는 기존에 있던 유림회와 새로 결성된 유도진흥회가 향교명륜당에 서로 자신들의 간판을 달겠다는 싸움이 발생했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9/05/02, 5). 이외에도 지역 사적의 역사, 관습, 효열녀에 대한 기록에 사사로이 비루한 가문을 기입한다 하여 발생한 김천유도진흥회의 분규 등도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동아일보 26/11/06, 4).

고 있었고 총독부나 지역관리의 권위를 강화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각종 언론에서 발견되는 상당 수의 분규는 대부분이 ‘향교재산’을 둘러싼 것이었다는 것은 곧 이들의 다툼에 ‘지역사회 내의 권력’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19세기까지 향촌사회는 혈연과 씨족을 중심으로 전통적 권위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적 유력자’가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향교에서의 교임(校任)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행정체계를 매개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물적토대와 함께 그 영향력에 의존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하려는 ‘관변적 유력자’들이 향교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향교의 운영주체는 향촌사회의 권력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 것이다(이용기 2009, 41). 결론적으로 일제는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갖는 이들을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인물로 대체하고자 지역 유림을 관변적 인사로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향교를 운영하게 하였는데, 일제는 유교를 그리고 향교를 통해 기존 향촌 유림세력을 배척 및 회유함으로써 지역을 장악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친일유림조직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총독부의 이러한 정책은 향교를 철저히 지역의 사회교화(동화)의 본산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¹³⁾ 이렇다 보니 향교에 대한 관리여부는 사무능력이 뛰어나고 총독부의 교화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친관(親官)’에 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즉 총독부는 지역내 비(非)유림출신을 대거 유림의 자격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하면서 기존 유림들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을 제한시켜 유림의 관변화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 유림은 도지사나 군수, 부윤 등의 관리들에 의해 경영되고 이들의 위임을 받은

13)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향교 재산을 보통 교육을 통한 간접적 사회 교화를 위해 사용하던 것에서 직접적인 사회 교화의 재원으로 전용하기 시작했다. 향교 재산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유림들의 불만이 점차 축적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이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연관 되었기 때문에 20년대에는 향교재산을 사이에 두고 유림들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할 것(김정인 2006, 81-114).

행정에 밝은 지역 유지들이 유럽의 간부로서 활동한, 유럽으로서의 소양과는 무관한 사람이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비유럽으로 구성된 유럽’의 시대였다는 점에서 전통시대와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특성이 있다. 즉 ‘입회비 1원만 내면 유럽으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다(금장태 2003, 49).

이 사이 안변유럽은 군수나 경찰서장을 초빙하여 효제(孝悌)나 수절(守節) 등을 강조하며 사회 미풍양속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매일신보 21/09/11, 4; 22/01/07, 4). 절(節)·효(孝)와 같은 전통적 가치를 복종의 논리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 안정 및 부의 창출 등을 강조하며 사회교화사업을 통해 일제통치에 순응하는 법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총독부의 의중에 부합하는 사회교화 사업 및 산업진흥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사업 및 행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¹⁴⁾ 이러한 사례를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것은, 당시 새롭게 결성된 친일유럽단체들은 군 당국이나 경찰의 절대적 지원과 후원 속에서 기존 유럽세력들의 활동을 사실상 좌절시키는 한편 대중교화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일전쟁 이후 전쟁 총동원시기가 되자 『황군위문시』발간, ‘장개석 축항서 발표’, ‘선만국경유럽연맹회(鮮滿國境儒林聯盟會) 조직’ 등으로 일제 협력을 이어갔다.¹⁵⁾ 시집에 시를 수록한 인원 즉, 1938년 안변 유럽에

14) 이들은 민중구제 사업에 기여한 자를 ‘독지자’로 선발하여 기념은배를 증여하거나(동아일보 22/10/23, 4) 안변진학회(安邊進學會)를 만들어 사회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실업개발에 착수하여 양잠기업전습소(養蠶機業傳習所)를 향교 내에 설치하여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5/12/08, 4). 30년대 이르면 유럽과는 다소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산업시찰을 위해 군수 윤상학(尹相學) 외 23명이 8일간의 일정으로 경성 및 평양 신의주 등의 서선(西鮮) 산업시찰을 다녀왔고(매일신보 29/09/25, 3)각종 유교행사(釋奠祭, 孔子誕辰日)를 ‘관혼상제 비용절약, 색의(色衣)장려, 유럽회원가입 독려’ 등을 결의하는 행사(매일신보 31/10/14, 3)나 부내(府內) 촉탁을 초빙하여 사회교화 강연회를 개최하는 자리로 변형시켜 활용했다(매일신보 35/09/28, 4). 한편 군수의 소집으로 유럽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80여명의 유럽이 향교 명륜당에 모여 군수 이선호(李善鎬)의 ‘도덕개명과 국산품 애용, 생활개선에 관한 강연을 얻어 들은 후 협조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매일신보 30/11/22, 3).

15) 동일한 내용의 시집을 발간한 곳은 안변과 전남 뿐이다. 그러나 전남 지역에서 발간된 시집의 실물이 발견되지 않아 ‘왜 하필 안변과 전남에서만 이러한 책이 발간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참여하고 있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관변성과 더불어 유림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상당수 가입되어 있어 사실상 지역 내 기타단체와의 차별성을 포착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군수 및 도협의원(道協議員), 면장, 면서기, 면협의원(面協議員) 출신이 상당하고 지역 학교 평의원 이나 학무위원, 공립보통학교 후원회나 학부형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인물도 상당하다. 더불어 국방의회, 안변구제회, 생활개선회처럼 관변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향약이나 금융조합, 운수조합, 양잠조합, 수리조합, 과수조합 등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 대다수 회원으로 파악되었다. 심지어 ‘안변농업공민학교 미수기부금 징수청산위원’으로 활동한 이도 당시 유림으로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다.¹⁶⁾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중 유도회 간부였거나 장의(掌儀)나 직원(直員)의 경험이 있는 이가 69명 가운데 10명에 불과한 데 비해 면장이나 군수, 도협의원, 면장, 면서기, 면협의원 등 관과 밀접한 경험을 가진 이가 22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대다수의 소속 구성원들은 유림이나 관원과는 무관한 각종 조합간부나 조합원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⁷⁾

물론 일제강점기 유림의 영향력이 전통사회와의 연속성을 갖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새롭게 형성된 유림의 인적구성은 과거 전통과 상이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조직 내에 군수나 면장 출신의 인사가 상당했고 면협의원 출신들 역시 상당수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권력과 이해 관계’의 측

분석할 수 없다. 다만, 안변과 전남에서 이러한 시집이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곧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 향교를 중심으로한 유림들의 영향력이 상당 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전통시대 농촌전통을 이어가고 있던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림중심의 지역사회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친일 유림의 활동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안변은 함남 지역의 주요 쌀 생산지였고 사과나 배와 같은 과물 및 기타 곡물 그리고 양잠의 생산량 또한 상당하였으며 금융조합의 발달도 다른 지역에 비해 꽤라 ‘지역의 금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박승호 1975, 185). 더불어 『개벽』에서의 언급처럼 “東拓의 黑手와 日鮮人 지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지역 내 영향력을 갖고 있던 유림들의 친일성향은 더욱 노골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16) 후면의 [표1] 참조.

면에서 이들 유립단체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하급 관리였던 면장출신을 제외하더라도 민간의 면협의회 출신이 14명 있었다는 것은 지역 내의 유지 중 상당수가 유립단체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면협의회원은 면민의 투표로 선정되어 4년간의 임기를 갖는 면의 자문위원로서 면민과 관청간의 창구로 면장의 부정을 감시하기도, 면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면협의회원 중 상당수는 소위 말하는 지역의 유지들이었는데 면협의회원이 되면 지역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유지들은 면협의회원에 관심을 가졌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면장배척운동’을 벌이기도 했다(한규무 2011). 즉 이들은 지역사회 운영의 중심에 위치한 유력집단들로 민중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각종 조합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면협의회원이었던 이들 중 상당수가 유립 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곧 지역 유립단체가 지역 내의 다소간의 이해관계와도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안변 유립의 사례로 비추어보면, 당시 유립단체는 관원이나 유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유력 단체로서의 기능이 더욱 커져있음을 보여준다.

17) 안변 유립 구성원이 속해 있던 주요 기관이나 단체명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속기관	인원	비고
관	군수	서성극, 최달빈(2)	
	면장	장하근, 김유진, 전한옥, 이낙주, 김성중, 김순경(6)	
	면협의회원	이병재, 김하능, 오시희, 이낙주, 신광윤, 이현규, 김홍석, 윤두선, 황승홍, 김병구, 이익수, 황일영, 전시환, 조관익(14)	
유립	향교	최달빈, 오영하, 김명준, 김하능, 윤태영, 윤제선, 전시환, 김유진(8)	
	유도진흥회	최달빈, 김원섭, 황내식(3)	
조합	군·면 금융조합	이병재, 장하근, 오영하, 김유진, 문득한, 김원섭, 김태성, 이낙주, 신광윤, 전송후, 이현규, 김백경, 윤대영, 황일영, 김순경, 전시환(17)	
향촌	향약	이병재, 황진국, 이낙주, 신광윤, 김성중, 김홍석, 이승윤, 김백경, 윤태영, 김세능(11)	
학사 (學事)	학무의원, 학평의원, 후원회 등	김유진, 황진국, 김원섭, 전송후, 김홍석, 김백경, 황일영(8)	학부형회 포함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 혈연, 학맥, 지식에 관계없이 유림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변단체들이나 지역 내 협동조합 같은 단체와의 차별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다수 유력자와 민중이 이 유림단체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이미 유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신분구조가 무너진 속에서 조직된 관변적 유림단체임에도 일반인과 유력자 집단이 다수 가입한 것은 곧 유가이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권위질서 관념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유림의 영향력이 지역 사회에서 상존되면서 많은 지역민들의 내면에 ‘전통적 계급 사회에 대한 복고 혹은 동경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유력자집단이나 일반 지역민들에게 과거 전통사회에 형성된 권위적 신분질서를 전복하기보다는 편승하고 싶은 ‘욕망’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근거로 안변 유림이 작성한 『황군위문시』의 작가, 즉 한시창작 집단의 상당수는 군수 면장 등의 관원들과 함께 지역 유지 및 유림이고자 했던 일반 대중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전통시대의 한시작가군의 인적 구성과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친일유림의 등장에 따라 일제강점기 한문학의 전통도 상당 부분 단절되어 일제협력의 징표로서 문자로서의 한문학만이 창작되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한문학 작가군의 계급성이 무너지면서 그 작가군을 비(非)유림출신의 친일인사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메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직과 국가 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이어 기업가로서의 면모까지 보인 박영철(朴榮喆)이 유림으로서 그리고 한시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다산시고(多山詩稿)』(1932년과 1939년 2회 출간)를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¹⁸⁾ 즉 새롭게 유림이 되어 때때

18) 그의 『다산시고』에는 총 859수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친일 작품은 대략 100여 수에 이르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할 것(구사회·최우길 2010).

로 한시를 창작하며 사회교화활동에도 적극 앞장섰던 친일유림들은, 근대의 도래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속에서 전근대적 신분구조나 문화적 특권성을 전복하기 보다 이를 자신의 영향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일제의 주도하에 진행된 유림 지형의 변화는 동시에 한문학 지형의 변화까지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유지였던 이들이 새로운 유림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으면서 일제협력을 위한 방편으로 담아낸 『황군위문시』의 시들은, 전통시대 유림이 갖는 권위와 ‘한문’이라는 문자가 갖는 문화적·지적 권위를 자신들 내부에 투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민족언어였던 한글을 버리고 일제가 내세운 동아시아 공통언어로서의 한문을 일제당국자에게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함께 협력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III. 『황군위문시』에 드러난 중일전쟁 및 동아시아 인식의 특성

안변 유림이 발간한 이 한시집은 당국에 자신들의 협력의지를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유림으로서의 소양을 강조하여 지역 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일제 초 한문학은 『매일신보』, 『신문계』(1913), 『조선문예』(1917)와 같은 잡지나 언론매체, ‘신해음사(辛亥陰社),’(1911), ‘이문회(以文會)’(1922) 등의 결사를 통해 장려되고 있었다(한기형 1999, 269). 즉 조선총독부 내부기관과 최영년(崔永年)·여규형(呂圭亨)·정만조(鄭萬朝), 박제순(朴齊純)·조중응(趙重應)등과 같은 구한말 지식인이나 일제초기 친일관료들이 속한 단체나 유력한 개인에 의해 장려된 것이다. 하지만 문화통치기·총동원시기에 이르자 각종 유림 단체가 조직됨으로써, 지역 유림조직을 중심으로 하급 관료나 지역 유지들에게 그 역할이 전이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무단통치기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유림 및

한문학 창작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은, 대한제국기로부터 급속히 진행된 거대한 근대적 변화로부터 소외된 구지식인들을 일제가 직접 비호하고 서로 더불어 한문학을 통해 교류하면서, 이들의 소외가 민족의식으로 나아가거나 형성되는 것을 막아서는데 기여했다. 이후, 문화통치기를 지나 총동원시기에 이르면 유교문화나 한문학 등에 대한 호고적 흥취가 있거나 이에 대한 동경 및 호고의식을 갖고 있던 지역유지들이나 일반인들을 유럽 내부에 편입시켜 이들을 식민체제 안으로 회유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정책은 사실, 이들을 통해 조선 내부에 잔존해있던 전근대적 유산을 식민지 내부에까지 잔존시켜 조선의 주변 즉 향촌사회를 전근대에 구속시킨 채 장악하려는 일제의 의도와 연관있다 할 수 있다. 즉 일제는 조선의 근대를 주창하면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전근대를 비호·지원·양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문 산문이 아닌 시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대로 이들은 유교적 소양이나 학식으로 유자가 된 자들이 아니었기에 정교한 논리나 합리적 근거 등을 제시 및 인용해야 하는 한문 산문을 택할 이유는 사실상 없었을 것이다. 근대적 담론들을 전근대의 언어로 서술해내야 하는 ‘한문 산문’의 경우, 대부분 지방 유럽이 아닌 일제의 주도로 중앙의 경학원·조선유도연합회 소속의 유력한 문사들이 담당했었다. 이런 배경에서 유가적 소양이 깊지 않던 지방 유럽의 입장이라면 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찬양과 협력의지만을 드러내는데는 시가 더욱 적합했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69수의 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중국의 야만성과 일본의 문명성’을 강조하며, 황군의 물리적 힘의 우세와 함께 문화적 우월성을 유가 경전이나 유가의 이상적 인물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폭지응징(暴支應懲)’을 외친 일제의 발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본의 중국침략을 유가적 도리와 의리로 재구성하면서 유가의 권위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서문 “황군위문시봉축문(皇軍慰問詩奉呈文)”에서부터 이러한 점은 강조되고 있다.

동양의 평화는 황국의 선택(善策)이오, 복지의 응징은 성상의 인술(仁術)이니, 이 출병의 날 즈음에 백성들은 가뭄에 비를 기다리 듯, 제갈공명(漢師)이 노수(瀘水)를 건넌던 것처럼 동심으로 죽을 힘 다하니 남쪽을 정벌하면 서쪽이 원망하는 지경이다. 우리 사림은 갑옷을 입고 병기를 들어 참전으로 응해야 하나 가르치지 않아 용기가 없다. 속내의 정성을 다하기 어려우나 감히 이 거친 시로나마 황군을 삼가 위로하노라.¹⁹⁾

김유진의 서문에는 구체적인 서술이나 정교한 논리는 보이지 않지만 일제의 침략성을 은폐하면서 전쟁의 도덕적 명분을 부여하고자 ‘선택’·‘인술’ 등의 용어를 시어로 사용했고 천황은 ‘성상(聖上)’으로 그 권위를 극대화 하였다. 이들은 황군을 ‘남만(南蠻)정벌’을 위해 노수를 건넌던 ‘제갈공명의 부대’에 비유했는데, 이는 기존 중화문명의 정통성을 황군에게 부여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을 과거 남만과 같은 야만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⁰⁾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황군의 중국침략은 “출사표(出師表)”에서 공명이 ‘야만의 불모지에 들어가 남만을 평정’한 것(今南方已定, 深入不毛)처럼 불모지를 문명의 땅으로 개선코저 한 문명국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서경(書經)』 ‘탕왕(湯王)의 고사’를 인용하여 각지 백성들이 서둘러 황군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 천하의 민심이 황군과 일제에 탄복하고

19) 金裕鎮, “皇軍慰問詩奉呈文”, 『皇軍慰問詩』, “東洋平和, 皇國善策; 北支膺懲, 聖上仁術, 際茲出兵之日, 夏民望預, 漢師渡瀘, 同心戮力, 南征西怨, 顧我士林提甲携兵應乎赴戰, 不教無勇, 難竭素忱, 敢纏燕辭, 拜慰轅門”

20) 윤치목(尹致默) 역시 공명의 고사를 소재로 시를 창작했다(32면).

군대의 기술은 무와 문이나	師團技術武並文
동력동심으로 국군에 보답하네	同力同心報國君
병영에서 기묘한 지혜로 주결을 운용하니	奇謀帷幄運籌決
전란 중의 산하에서 서로의 본분 맹세할 수 있도다	能戰山河相誓分
칠종칠금의 노수를 건너듯	七縱七擒渡瀘水
일노일정하며 비구름 바라보니	一怒一征望雨雲
일월의 깃발 도처에 행해지면	日月旌旗行到處
매일매일 지나군 도처에서 패할지라	朝朝到處敗支軍

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일본의 유도란 결국 일본 통치의 당위성과도 닿아 있다. 일본이 무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문화적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선과 중국은 무를 경시하였고 전근대 문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와 발을 나란히 한다. 이러한 면모는 시집에 수록된 상당수의 시를 통해 재현되고 있었다. 69수의 시 가운데 가장 빈번히 그리고 반복되는 수사는 바로 ‘문무(文武)’를 겸하고 있다는 수식이었다. 총 21수에서 발견되며 이는 대략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시에서는 “무를 행한 연후에야 가히 문을 닦는다”(武然後可以修文, 趙觀益, 36쪽), “황군이 떨치는 무력은 무와 문을 겸한 것”(揚武皇軍武兼文, 尹致默, 32쪽)과 유사한 같은 시구들로 미화되었는데, 이승선(李昇璇, ?~?, 32쪽)의 시를 통해 살펴보자.

무력 드날리는 황군 문화를 겸하고 있는데	揚武皇軍兼文化
쥐처럼 숨어있는 북군이 하물며 남면한	北軍鼠竄況南君
우리 임금을 어찌하라	
우리내 풍년과 서로간의 절용을 바라며	願我年豐相節用
총후의 백성으로 거듭나 근심 함께 나누세나	爲民統後共憂分
적심으로 나라에 보답하기를 산해에 맹세하고	赤心報國誓山海
장대한 기상으로 성을 쳐부수며 비구름 무릅쮸네	壯氣破城冒雨雲
충렬히 싸우는 황군 위로하는 시 지어보나니	慰其忠烈爭詩寫
함께 개선가 노래하며 적군 산산히 부셔버리세	和唱凱歌散敵軍

이승선은 황군이 문과 무를 겸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쥐구멍에 숨어있는 음험한 쥐와 같은 무리일 뿐이라며 일제를 찬양하고 중국을 비하했다. 즉 중국은 현재 서찬(鼠竄)의 지도하에 놓인, 다시 말하면 간사하고 나라를 좀 먹는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야만의 상태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후방의

국민으로서 전쟁협력에 적극 임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전선에 있는 황군을 위로하며 승전을 거듭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시를 마감했다. 사실 일제는 근대에 대한 결핍으로서 전통적 동양정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들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를 서구이념과 성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동아의 맹주 자격을 갖췄다고 여기며 이 동양정신을 기초로 아시아 제패를 기도하고 있었다. 일제에게 이 동양정신은 근대 이후 자국에서 형성된 유교 이념을 중심으로 한 천황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국민국가 형성과 국민성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자국을 벗어날 경우, 이는 침략의 논리적 근거와 당위로 여겨졌다. 즉 식민 지배를 위한 이념으로서 동양정신은 식민지 백성에게 식민지배 당위성을 역설하는 담론으로 전용(轉用)된 것이다(류미나 2010, 73-75). 이 담론에서 ‘유교문명의 공동성’은 자주 언급되는데 일본인 통치자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대동학회 결성에 열의를 보인 것처럼 강제병합 초기부터 조선통치에서 유교를 잘 활용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명분상 일본을 통해 조선유교의 폐해와 구태를 극복해야 함을 내세우면서, 유교의 전근대성을 조선인 스스로 더욱 내면화하여 조선의 절대적 복종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일제는 조선 관료들의 ‘소중화 의식’이 ‘소황도 의식’으로 전이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 지식인들은 조선의 유교전통의 가장 큰 결점을 “인(仁)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교형 2010, 77). 그런 의미에서 안변 유림이 ‘문무’의 결합 혹은 조합이란 측면을 강조한 것은 상술한 것처럼 일제가 조선인에게 내면화시키고 주입시킨 식민지 이데올로기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는 조선유학의 병폐를 ‘유약(柔弱)’, ‘당파(黨派)’·‘사대(事大)’라 하며 이를 강조하는 한편 일제는 기존의 동아시아 문명의 결점을 보완하면서도 이를 전통과 결합시켰다고 자부했다. 즉 기존 동아시아 유교문명의 도통론은 천황제를 중심으로 근대를 흡수한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일제는 유교가 청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근대의 일부로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이미 일본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선전하여 조선 유림을 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류승완 2010, 185).

안변 유림의 인식상에서, '왕도주의에서 황도'로 유가의 도통이 전환된 시대를 거부한 채 일본과 맞서있는 중국은 일본이 새롭게 창달한 '선진 문명을 거부하는 오랑캐'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일본의 중국침략은 이승선의 언급처럼 '쥐새끼(鼠)'로 상징되는 저급문명을 응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여 '응징'은 황군을 위문하고 격려하며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방어논리로 또한 빈번히 사용되었는데 '징(懲)' 혹은 '응징(膺懲)'이 시구로 사용된 시는 총 10수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한번 크게 노하사 불의한 임금을 응징하소서”(一怒膺懲不義君, 全潤文, 33쪽), “저 흉폭한 무리를 응징하옵고 먹구름을 잠재우소서”(應彼暴凶潛黑雲, 金聲鍾, 16쪽) 등이 대표적이다.²¹⁾ 이희련(李禧鍊, 24쪽)의 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화합하지 못하는 세력들로 격문들이 치달리니	勢不協和馳檄文
민국의 무군의 혼란은 응징됨이 마땅하네	當懲民國亂無君
민생 구제의 대의로 천하를 평정하고자	濟生大義乾坤定
순정한 충의로 죽기를 맹세하며 육해로 흩어졌다네	誓死精忠海陸分
오래된 역참에서 풍찬하며 매일 비에 흠뻑 젖었고	古驛風餐朝沐雨
광교에서 노숙하며 밤마다 구름으로 이불 삼았지	曠郊露宿夜衾雲
동양의 승평한 날 머지 않아 보게 될 터이니	東洋庶見昇平日
우리 지극한 정성으로 충후국민을 감행하세나	敢我丹忱銃後群

일본은 '만주사변'의 원인을 중국으로 전가시키면서 '동양의 평화' 때문

21) 이는 『성전성시집』에서 유진찬(俞鎭贊, 1866~1947)이 '어리석고 우매한 아이를 순순하게 타일러 가르치는데도 따르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매를 들어 기어이 반성하게 하는 것'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경학원 1937).

에 ‘폭도와 같은 중국의 무리’를 벌하고 그들로 인해 도탄에 빠진 인민을 구제한다는 ‘폭지옹징(暴支膺懲)’의 미화논리를 내세우며 중일전쟁을 감행했다. 위의 시에서는 국(國)·공(共)내전 중인 중국지도세력을 불협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그 원인을 ‘임금’의 부재로 들었다.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만이 혼란한 동아시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무군의 논리는 맹자가 양주(楊朱)의 위아(爲我), 묵적(墨翟)의 겸애(兼愛)를 비판하며 이들의 무리를 금수와 같다고 주장할 때 말한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논리다. 전근대시대의 군주에 대한 권위를 근대 일본 천황으로 전이시켜 이를 절대화하고 당연시하는 이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수련(頸聯)과 함련(尾聯)에서 일제 침략의 정당성과 중국침략의 응당성을 논하였다면 경련(頸聯)과 미련(尾聯)에서는 황군의 노고를 위로하고 민중들의 전쟁 협력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는데, 충후의 국민으로서 이를 마땅히 감당해내자는 의지를 피력하며 끝맺었다.

이들이 이러한 응징의 논리를 확대 및 재현하고 있는 기저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일제는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아시아는 하나이다’라는 심정적 동질감을 동원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선전함으로써 아시아의 단결을 호소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이들이 말한 대동아공영이란 기실 지리적·인종적·문화적 대립구도를 근간으로 하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동양평화와 근대화를 명분으로 일제가 내세웠던 ‘아시아연대’는 다른 아인 아시아 친일세력간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철저히 그 침략성과 폭력성이 은폐된 것이었다(채수도 2010, 469-473). 이러한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일제 말 사회의 지배담론으로서 ‘대동아공영’은 수 많은 지식인들 및 어용 학자들로부터 제창되기 시작하는데 『황군위문시』에서도 아시아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승중(李昇鐘, 24쪽)의 시를 통

해 그 일면을 살펴보자.²²⁾

황군 진영의 대오 천문에 응한 듯 하니	皇軍陣象應天文
만백성 하나의 정성으로 모두 임금을 위하네	萬姓一忱總爲君
본디 우리 동양족이거늘 어찌 서로 적이 되었누	本吳東族奚相敵
미련스런 저 북지 유독 스스로 분리코저 한다네	蠢被北支獨自分

폭탄 떨어지는 곳마다 대나무가 쪼개지듯	爆彈地頭如破竹
천하의 검끝으로 미혹된 구름을 쓸어버리니	劍芒日下掃迷雲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장사의 힘 얻어	願得我邦諸將力
천억 국민들이 구제되길 바랄 뿐이라네	濟四千億國民群

일제는 조선·대만·만주 등의 지역을 통치 및 점령하면서 피압박민족 구성원들의 불만과 이질감, 저항을 불식시키고 협력의 동기부여를 위해 ‘동일성의 논리’를 전면에 등장시켰는데, 대표적으로 ‘동조(同祖)’·‘동종(同種)’·‘동근(同根)’·‘동문(同文)’ 등의 담론이 그것이다. 강제병합 당시 일제는, 근대적 민권사상을 선전하면서 일본의 지배는 침략이 아니라 무능한 왕조의 학정하의 조선민중을 같은 민족으로서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후 일제는 이러한 ‘동일성의 논리’를 점차 문화적 인종주의로 확대하는 한편 일본민족의 우월감을 강조하는 ‘동화’담론을 동아시아 전역

22) 위와 유사한 시 가운데 조관익(趙觀翼, 36쪽)의 시를 옮겨본다.

무를 쓴 연후야 문을 닦을 수 있나니	武然後可以修文
이는 진정 우국애군의 거사라네	此舉眞憂國愛君
본래 동족이었는데 어찌 서로 등을 맞대고	本同族也何相背
대세를 안다면 결단코 나눌 수 없을진데	知大勢乎決不分
분투하는 용기 모든 마음에 물불처럼 이르렀고	奮勇蹈千心水火
웅장한 위엄 만리의 풍운으로 치달리니	雄威驅萬里風雲
의장한 황군이 이르는 곳마다	義壯哉皇軍所到
서로 화합하여 양의 무리를 내쫓는 듯 하겠네	洽相似放逐羊群

으로 확대시키기에 이른다. 즉 미개한 민족이 일본인처럼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이정은 2010, 95-99). 이러한 배경에서 작성된 이들의 시에는 확연해진 ‘일본의식’하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즉 조선인 의식이 사라진 자리에 일제에 동화된 ‘동아시아 문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작자에게 동아시아 어느 나라든 천문에 응당한 황군의 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중국의 저항은 곧 야만의 행위이자 ‘매우 어리석은(蠢)’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일제의 통치는 조선에게 야만의 중국에 앞서 문명적 선점을 가져다 준 일본의 시혜라 여기며, 조선의 식민상황의 긍정과 지속에 대한 염원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저항은 민심과 천심을 모두 거부하는 역천(逆天)의 행위로 인식되었다. 미련에서 그가 언급한 ‘천억국민’은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가 일제의 승전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일제의 침략과 일제의 대동아공영이 세계적 보편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끝으로 『황군위문시』에는 ‘황군의 궁극적 책임자’인 ‘천황’에 대한 언급 역시 빈번하다. 일본의 천황제파시즘은 ‘대동아일가(大東亞一家)’의식에 따른 가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부권(父權)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가족구성원 각 직분에 따른 헌신과 희생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제는 창씨개명과 일본어사용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모든 언론을 통해 ‘운명공동체’, ‘대동아일가’와 같은 동화의 수사학을 끊임없이 확산시켰다. 즉 서구인을 타자화된 가족의 적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일한 문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가족국가주의의 대동아적 확대”를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다(권명아 2005, 379). 『황군위문시』에서는 20수가 넘는 시에서 ‘임금(君)’이라는 글자가 천황을 수식하는 시어로 등장하는데 ‘국군을 위해(爲國君)’, ‘국군에 보답(報國君)’, ‘국군에 충성(忠君)’ 등의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고, 천황 자체를 수식하는 것으로는 ‘명군(明君)’, ‘성군(聖君)’, ‘덕군(德君)’, ‘애군(愛君)’ 등으로 언급되었다. 이 가운데 오익계

(鳴鶴桂, 5쪽)의 시를 살펴보자.²³⁾

나라에 무를 씌에 먼저 문을 쓰시어	用武國家先用文
치평한 성세 장구함은 명군에 힘입음이라	治平長久賴明君
속속 대륙의 개활한 땅 점령하셨고	速速領占輿地濶
웅대한 포발소리로 하늘의 분부를 밝히셨네	殷殷砲發曉天分

폭락하는 항공기 먼 하늘의 우박처럼 떨어지고	航機暴落層空雹
기치의 깃발들 만리 구름처럼 일어나니	旗幟章生萬里雲
비상한 시국 하 정성으로 바친 헌금이	非常時局誠金獻
오직 우리 동양에서만 만억이 모였다네	惟我東洋萬億群

문무를 겸하고 있는 황군의 위용 그리고 조금씩 커져가는 일제의 힘, 그에게 이 모든 현실은 다름 아닌 명군인 천황의 덕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침략전쟁은 하늘의 분부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자 천명으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황군의 전략에 패퇴하는 중국군은 ‘우박처럼 떨어지는 항공기’로 묘사했고, 황군에 대해선 ‘깃발이 만리나 되는 구름처럼 일어난다’며 그 용성함을 표출했다. 끝으로 동아시아 민중의 단결과 기원을 국방헌금을 통해 드러내며 시를 마감했다. 이 시 역시 수련과 함련에서 전쟁의 당위와 명분을 밝히고 경련과 미련에서 일제의 전승과 민중들의 전쟁협력을 기

23) 이와 유사한 시 가운데 황일영(黃日永)의 시(29쪽)를 소개해 본다.

용사가 출정함에 격문을 펼치니	勇士出征布檄文
진충갈력으로 우리 임금위하네	盡忠竭力爲吳君
진전에서의 신묘한 기책 모든 것 공략하시니	陳前神策諸公畧
충후적성은 나의 의로운 본분일지라	銃後赤誠我義分
충천한 칼검 번개처럼 번쩍이나	衝天劍戟閃如電
만주 땅에 가득한 풍진이 은밀히 운집하려하니	滿地風塵暗欲雲
무운이 해동에 장구함을 능히 알 수 있으니	能知武運海東久
많은 수가 있다 한들 승부에 관여할 순 없으리라	勝負不關多數群

원 및 독려하는 대다수 시의 형식과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다.

『황군위문시』에 수록된 대다수의 시는 개인의 문집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하에 기획되었기에 위에서 살펴본 시와 큰 변별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또 각각의 개성적인 특징 역시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내용상의 특징으로 일제의 문명성과 중국의 야만성, 그리고 황군의 승전으로 인한 동양평화를 기원하는 노골적인 내용이 쉽게 발견된다. 황군 그리고 일제의 통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보다는 사실적이지 직접적 서술로 묘사했는데 이는 일본인 황군을 대상으로 하면서 당국에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황군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협력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적 수사를 활용한 것이다²⁴⁾ 한편, 비슷한 시기 안변 유림의 작품과 유사하면서 상이한 작품이 등장한다. 중일전쟁 발발 후 일제의 기획으로 조선문인들은 황군위문작가단을 조직하여 임학수, 김동인, 박영희를 선정하였고, 이들은 공적 신분으로 위문품을 들고 직접 황군을 위문하고 돌아와 작품들을 남겼다. 물론 안변 유림이 남긴 『황군위문시』와 임학수가 남긴 『전선시집(戰線詩集)』(1939)은 창작 배경과 사용된 문자, 문학적 수사, 작품의 중량감, 영향력 등은 매우 상이하지만 한문학사나 국문학사에서 전쟁협력 문학의 시원이 되는 작품들로서 일제가 내세운 그릇된 이상이 현실화되길 기원하고 있는, 일제의 동아시아 지배를 자신들의 이상과 동일시 하고 있는 일제에 경도된 조선인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평가할

24) 그리고 안변 유림은 ‘조선의 히틀러’라 불리며 일본군국주의 과시즘을 가장 철저히 내면화하며 조선 민중에게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가한 7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와 그를 보좌한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의 퇴임을 기념하는 전별시(餞別詩)를 수록한 『봉전남총독각하(奉餞南總督閣下)』와 『봉전대야총재각하(奉餞大野總裁閣下)』에도 이름을 올리며 한시를 통한 일제 찬양을 이어갔다. 위 책은 1942년 조선유도연합회가 매일신보사에 한시공모를 하여 발행한 시집으로, 안변 사람 가운데 『봉전남총독각하』에는 창씨명 선원봉림(旋原鳳廉), 김본재전(金本在銓), 『봉전대야총재각하』에는 문야광박(文野光博), 문세호(文世鎬)가 이름을 올렸다. 위 두 책에 관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 사료집(2009)과 한길로(2013)를 참조할 것.

수 있다.²⁵⁾ 『전선시집』에서도 중국인민을 “동문의 형제”, “동족의 자매”라 표현하며 대동아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한편 전쟁을 ‘대륙의 봄’으로 여기고 황군의 자애로운 면모를 부각시키며 나아가 이들의 은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유사한 일제 전쟁협력의 논리가 다양한 계통에서 재생산되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구 2008). 위 책이 임학수 한 개인의 입장보다 황군위문사절단의 입장에서 당시 조선문단의 시대 진단과 친일 논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황군위문시』역시 한 지방의 시집이지만 총동원시기 유림들의 대응과 내면화된 친일신념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평가할 수 있다.

IV. 결론

일제는 통치초기부터 ‘유림의 친일화’가 조선 지배의 비중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선 유림의 친일화는 강제병합 이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였다. 이토는 ‘조선왕조’에 대한 충성,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조선유림의 전통을 단절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친일관료인 이완용(李完用)과 조중응(趙重應) 등의 배후에서 자금을 대며 신기선(申箕善)을 회장으로 하는 ‘대동학회(大東學會, 1909)’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최초의 친일유림단체라 할 수 있는 대동학회 결성 이후 문화통치기에 이르러 이러한 정책은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결국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며 내세운 근

25) 『전선시집』은 1939년 3월 임화(林和)·최재서(崔載瑞)·이태준(李泰俊)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황군위문작가단(皇軍慰問作家團)’에서 선정한 세 사람이 ‘조선문단사절’이란 명분으로 황군을 위문하고 난 뒤 이들 중 임학수가 작성한 시집이다. 서문은 이광수가 작성했고 총 2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전봉관(2005)은 사절단에서 김동인이 소설가로서, 박영화가 비평가로서, 임학수가 신예 시인으로서 선출된 것은 이는 시, 소설, 비평 각 분야에서 중일전쟁을 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화나 왕조체제 하의 계급관념 해체 작업을 중단시키는 한편 향촌사회에 잔존하고 있던 종래적 신분관념과 유교적 폐쇄주의를 식민구조 속에 포함시켜 식민통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조동걸 1989, 147). 이러한 일제의 입장은 “조선 사회에서 유교도덕의 권위를 뒤흔들기까지는 부족하다. 조선은 순진한 유교국이다”라며 조선에서의 유교의 권위를 조선 지배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다카하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교형 2012, 171).

안변 유림은 지역 단위 친일 유림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안변 역시 일제의 친일유림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20년대에 이르러 유도진흥회 안변지부가 설립되었는데, ‘은사금 횡령사건’으로 6년 감옥에 다녀오는 등 친일인사로 많은 지탄을 받던 ‘최달빈’이 지명되면서 많은 분란을 겪게 된다. 지역 유림과의 조율 없이 임명된 최달빈과 같은 친일인사와 각종조합원 경력이 전부인 지역민이 포진된 친일유림단체는 군수 및 면장, 면협의원, 군·면 단위의 관원 경력이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지방의 유림의 인적구성은, 당시 유림의 좌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통시대의 유림과는 새로운 차원의 유림이 구성되어 사실상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지역 내에서 유림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 말에 이르러 더욱 심해져, 일제 말 최대의 친일유림단체로 일제의 전쟁협력에 앞장 선 조선유도연합회의 회원 가입기준은 “성년 이상의 제국신민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였다.²⁶⁾ 일제 말의 이러한 풍경은 지방과 중앙을 크게 가리지 않은 전국적인 유림의 모습으로 전통시대 유림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던 항일유림에게 당시 유림은 “대제학·부제학·사성 등 직책을 두고 친일파 중에서 유림의 이름을 흠친 자”들로 채워져 있을 뿐이었다. 일제하 이러한 유림 내부의 갈등은 해방 후

26) 동아일보 39/10/17, 2.

에도 이어져 해방 정국에서 민중들의 많은 지탄을 받게 된다.²⁷⁾

이러한 변화는 비단 유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전통 유럽지형의 붕괴는 곧 한문학 전통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대한제국기에 활동한 명망있던 유럽들은 강제병합 후 일제 관료들과 더불어 다수의 한시를 창작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순수한 문학적 욕망보다는 일본인과의 친교나 고급의 문화적 유희의 측면이 가까웠었다. 사실 이것은 강제 병합 당시 구 지식인을 포섭하고 회유하기 위해 일제가 내세운 하나의 수단이자 방편이기도 했다. 그것은 이미 ‘복고로 편향’된 것으로 시대적 요구와 흐름과는 분명 상반된 것이었으나, 일제에 이들을 통해 새로운 한문학 풍토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매일신보』를 통해 한문학 지면을 마련해 주고 있었는데, 이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문학언어의 변화와 전통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불만이었던 구(舊)지식인들을 포섭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기도 했고, 한글로 상징되는 ‘민족’의 문제를 비켜 동문(同文)에 근거한 공통의 문화공동체 담론으로서 동아시아 문명의 재흥담론을 가능케 하였다. 동아시아의 ‘동문(同文)’으로서 총독부의 지지를 획득한 한문의 세계는 ‘불안한 권위’로 지탱되면서 ‘전통적 권위를 동원한 일제 찬양’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하도록 조장되고 있었던 것이다(권보드레 2010).

1894년 ‘과거제 폐지’ 이후 근대적 매체의 등장, 문학의 사회적 지형과 향수층의 변화, 계급의식의 성장 등은 한문학 창작과 유통을 급속히 감소시켰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근대는 더 이상 ‘월상계택(月象谿澤), 삼당(三唐), 사가(四家)’가 다시 출현할 시대는 지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한문학은 이제 “결

27) 김창숙은 해방 공간에서 일제에 의해 도나 군의 재산으로 빼앗겼던 향교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환원받아 성균관을 다시 세워야 함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균관은 원래 국가가 경영한 국학(國學)이었다. 왜경 때 경학원(經學院)으로 개칭하여 대제학·부제학·사성 등 직책을 두고 친일파 중에서 유럽의 이름을 훔친 자들로 채워 놓았었다. 8.15이후 미 군정청에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여 경학원은 유교인의 자치 기관으로 군정이 상관할 바 아니라 하였다. 친일파들은 이에 성균관을 자기들 소굴로 만들어 날뛰었다”(김창숙 2001, 414-415) 해방 후 친일 유럽과 항일 유럽간의 갈등은 ‘유도회 분규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많은 관심과 지탄을 동시에 받았다.

산·정리에서만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었다(김태준 1997, 20). 하지만 이 시기 한문이 갖는 문학언어로서의 기능은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문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권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유럽 그리고 한문에 대한 권위가 내부적으로 완전히 해체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일제는, 한문학의 다양성을 막고 일제에 의해 재편된 권위와 계급성을 부각시키면서 유교적 소양이나 문학성 여부와는 무관한 친일의 목소리를 담은 ‘관계적 한문학’을 장려했다. 그리고 일제 말이 되면 『성전성시집』, 『봉전남충독각하』, 『봉전대야충재각하』, 『축징병제실시』 등 노골적인 친일협력의 내용을 담은 한시집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고려조를 거쳐 조선조에 형성된 거대한 학술전통의 급속하고도 정교한 왜곡과 심각한 단절을 의미함과 동시에, 과거의 성과를 근대적 유산으로 충실히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이종목 2005, 440-442). 이러한 배경에서 『황군위문시』는 당시 지역의 유림단체 소속 구성원들의 친일 한시 창작 방향과 지형을 웅변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투 고 일 : 2013년07월08일]

[심사완료일 : 2013년08월20일]

[게재확정일 : 2013년08월22일]

〈표 1〉 시 수록자 명단 및 주요 활동 단체 (순서는 시에 수록된 순서를 따름)

순서	성명	주요 경력 및 활동 단체	참고문헌	비고
1	서성극 (徐聖極, 1892~?)	함흥군서기(1921), 정평(定平)군수(1930), 이원(利原)군수(1931), 안변군수(1934~1938), 영흥(永興)군수(1939).	『관보』, 『직원록』, 『매일신보』, 『동아일보』.	『친일인명사전』 권 2 수록.
2	오시옹(鳴時膺)	안변군납세우량자표창(1931).	『매일신보』	
3	이병재(李炳宰)	안변군안도면회계원(1915), 면협의원(1931), 안변금융조합(1931), 안변면영회(1933), 안변군향약(1933), 안변수리조합(1933), 안변미곡조합(1936).	『매일신보』	
4	장하근(張河根)	안변배화면장(培花面長)(1919~31), 안변금융조합대표(1929), 함경남도평의회원(1930), 배화면금융조합대표(1930), 안변군생활개선회(1931), 안변군축산조합(1932).	『매일신보』, 『직원록』,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5	최달빈(崔達斌)	북청군수(1907), 대동학회(1908), 유도진흥회안변지부장(1920), 조선유도사(朝鮮儒道社), 안변향교진흥회(1924), 선만국경유림련연합회(鮮滿國境儒林連合會)(1938), 명륜전문학원평의원(1939).	『직원록』, 『매일신보』, 『동아일보』, 『고등경찰용어사전』	1920년대 중반 안변 유림분규 사태의 핵심 인물. 『친일인명사전』 2 수록
6	오영하(鳴泳夏)	배화면(培花面)금융조합조(1930), 안변향교장의(掌議)(1930), 안변군생활개선회(1931).	『매일신보』	매일신보사에 황군위문금과 국방원금 3원 기탁 (1937)
7	김하능(金河能)	안도면(安道面)협의의원(1929), 안변향교장의(1932).	『매일신보』	
8	오익규(吳翊柱)	미상		
9	김유진(金裕鎭)	안변금융조합(1929), 신모면장(新茅面長, 1931), 학교평의원(1935), 안변문묘직원(1938).	『매일신보』	『황군위문서』 서문 찬합.
10	황진국(黃鎭國)	안변군공보교(公普校)학무위원(1920), 안변군생활개선회(1931), 안변농업보습학교후원회(1932), 안변군향약(1933), 보호관찰심사회(1937).	『매일신보』	중추원회의 참석(1937)
11	문득한(文得漢)	안변금융조합(1929)	『매일신보』	
12	전한옥(全濶郁)	문산면진흥회(1930), 안변군농회(1930), 안변군생활개선회(1931), 안변군학교평의원(1931), 안변군삼림조합(1931), 안변군수리조합(1932), 양잠소작조합(1933), 신모면장(1937)	『직원록』, 『매일신보』, 『관보』	의사(면허번호 6713, 허가 (1930~1942)
13	오용현(鳴容鉉)	미상.	『매일신보』	황군위문금과 국방원금 10원(1937)
14	오시회(鳴時會)	신모면협의의원(1929).	『매일신보』	
15	김영준(金營濬)	미상.		
16	김부근(金復根)	미상.		

순서	성명	주요 경력 및 활동 단체	참고문헌	비고
17	김용규(金溶圭)	미상.		
18	김홍태(金鴻泰)	미상.		
19	김원섭(金元燮)	안변운수공동조합(1929), 유도진흥회(1931), 안변금융조합(1931), 안변공립보통학교후원회(1933), 안변공립보통학교학부형회(1935).	『매일신보』	
20	김태성(金泰聲)	안변금융조합(1931).	『매일신보』	
21	이낙주(李洛柱)	신모면장(1918~1926), 안변군신모면협의원(1929), 안변군금융조합(1931), 안변과수조합(1933), 안변군향약(1933).	『직원록』, 『매일신보』	
22	황내식(黃來湜)	유도진흥회안변지회(1921).	『매일신보』	
23	이병하(李炳夏)	미상.		
24	이주환(李周煥)	미상.		
25	신광윤(申光允)	신모면면협의원(1929), 안변금융조합(1931), 양장소작조합(1933), 안변군향약(1933).	『매일신보』	
26	김현겸(金鉉謙)	미상.		
27	박주훈(朴周勳)	미상.		
28	이덕림(李德林)	안변미곡조합(1936).	『매일신보』	
29	전송후(全宋屋)	안변농보교후원회(1932), 안변금융조합(1935).	『매일신보』	
30	김성중(金聲鍾)	문우회(文友會, 1929), 문산면장(文山面長, 1929~1938), 안변군생활개선회(1931), 안변군축산조합(1932), 안변구제회(1932), 안변국방의회(1933), 양잠소작조합(1933), 안변향약회(1933).	『매일신보』, 『직원록』	
31	한교연(韓敎淵)	미상(『직원록』에 의하면 안변 인근인 문천의 보통학교에서 근무했던 동일 이름이 있으나 확인 불가. 문천수치공립보통학교(文川秀峙公立普通學校) 부훈도(副訓導, 1920~22) 및 훈도(1922~24)).		
32	이현규(李賢圭)	안변농민회(1928), 안변금융조합(1929), 배화면협의원(1929), 배화면금융조합(1931), 안변군생활개선회(1931), 과물동업조합(1935).	『매일신보』	
33	박한률(朴漢律)	미상.		
34	김홍석(金洪錫)	배화면협의원(1929), 안변배화면소비합조(1931), 안변농교후원회(1932), 안변농업국민교미수기부금징수청산위원(1933), 안변향약회(1933), 안변군학교평의원(1935).	『매일신보』	
35	윤두선(尹斗善)	안변군수리조합(1929), 학성(鶴城面)면협의원(1929).	『매일신보』	
36	이승도(李昇道)	미상.		
37	이승윤(李昇胤)	안변군수리조합(1929), 안변군향약(1933).	『매일신보』	

순서	성명	주요 경력 및 활동 단체	참고문헌	비고
38	황승홍(黃承洪)	위익면(衛益面)면협의원(1935).		
39	박병관(朴秉琯)	미상.		
40	김용필(金溶玢)	미상.		
41	김명준(金明濬)	안변향교장(1930).	『매일신보』	
43	김상소(金相邵)	미상.		『황군위문시』 인쇄인
44	김병구(金秉九)	위익면협의원(1935).	『매일신보』	
45	이희련(李禧鍊)	미상.		
46	이승중(李昇鐘)	미상.		
47	이익수(李益洙)	문산면협의원(1935).	『매일신보』	
48	김백경(金百卿)	안변금융조합(1931), 안변농보교후원회(1932), 안변군향약(1933), 안변공보교후원회(1934), 안변보교학부형회(1935).	『매일신보』	
49	김유경(金有卿)	미상.		
50	윤제선(尹濟善)	조선민립대학교구성지방부(1923), 안변군 문묘직원(1925), 안변군생활개선회(1931).	『매일신보』, 『동아일보』	
51	윤태영(尹台永)	안변향교유회(安邊鄕校儒會, 1924), 안변진학회(安邊進學會, 1926), 안변농민회(1928), 안변금융조합(1929), 학성면산화산정보조합(鶴城面花山亭湊組合, 1930), 안변공보교후원회(1930), 안변기자동맹(1932), 안변국방의회(1933), 양잠소작조합(1933), 안변군향약(1933), 안변보교학부형회(1935).	『매일신보』, 『동아일보』	매일신보사 안변지국장 (1929)
52	원창희(元昌喜)	안변금융조합(1929), 안변수리조합(1932).	『매일신보』	
53	김남길(金南吉)	미상.		
54	김세능(金世能)	안변군향약(1933).	『매일신보』	
55	성찬영(成璨永)	미상.		
56	황일영(黃日永)	안변수리조합(1929), 학성면협의원(1931), 안변금융조합(1931), 안변국방의회(1933), 안변공보교후원회(1933), 과물동업조합(1935), 안변미곡조합(1936).	『매일신보』	황군위문금과 국방헌금20원 (圓)(1937)
57	김순경(金淳京)	학성면장(1922~27), 함남도평의원(1928), 안변금융조합장(1932).	『매일신보』, 『직원록』	
58	박상욱(朴尙旭)	미상.		
59	박재문(朴載文)	미상.		
60	김의경(金懿經)	미상.		
61	윤치묵(尹致默)	미상.	『매일신보』	안변군민헌금 2원(圓)(1938)
62	이승선(李昇璇)	미상.		
63	한재호(韓載鎬)	미상.		
64	전윤문(全潤文)	미상.		

순서	성명	주요 경력 및 활동 단체	참고문헌	비고
65	전시환(全時煥)	신모면협의원(1929), 안변금융조합(1930), 안변향교장의(1932), 『조선신사대동』(1913)에 의하면 그는 향교유사(有司), 신모면면서기, 농무회(農務會)서기를 역임.	『매일신보』, 『조선신사대동』	
66	김계률(金啓律)	미상.		
67	이준득(李準得)	신모면면협의원(1931).	『매일신보』	
68	김병용(金炳龍)	미상.		
69	조관익(趙觀翼)	문산면면협의원(1929), (주)석왕사흥업(釋王寺興業)이사(1938).	『매일신보』, 『조선은행회사 조합요록』	기원가절(紀元佳節)기념 각도표창(各道表彰) 선정

※ 「관보」: 『조선총독부관보』.

『직원록』: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참고문헌

- 강동진 (Kang, Dong-jin). 1980. 『일제의 한국 침략정책사』(Ilje-ui Hanguk Chimnyak Jeongchaeksa). 서울 (Seoul): 한길사 (Hangilsa).
- 고교형 (Go, Gyo-hyeong). 2010.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Sikminji Joseonin-eul Nonhada). 서울 (Seoul): 동국대학교출판부 (Dongguk University Press).
- 구사회 (Gu, Sa-hoe) · 최우길 (Choi, Woo-gil). 2010. “박영철의『다산시고(多山詩稿)』와 친일시.” (Park Yeong-cheol-ui 『Dasansigo』wa Chinilsi) 『평화학연구』(Pyeonghwahak Yeongu) 11-1: 307-326.
- 권명아 (Kwon, Myeong-a). 2005. 『역사적 파시즘』(Yeoksajeok Fascism). 서울 (Seoul): 책세상 (Chaeksesang).
- 권보드레 (Kwon, Bodeure). 2010.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1910nyeon dae-ui Ijungeo Sanghwang-gwa Munhak Eoneo) 『한국어문학연구』(Hangugeo Munhak Yeongu) 54: 5-43.
- 금장태 (Geum, Jang-tae). 2003. 『현대 한국유교와 전통』(Hyeondae Hanguk Yugyo-wa Jeontong). 서울 (Seoul): 서울대학교출판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김승구 (Kim, Seung-gu). 2008. “식민지 지식인의 제국 여행.” (Sikminji Jisigin-ui Jeguk Yeohaeng) 『국제어문』(Gukje Eomun) 43: 181-214.
- 김정인 (Kim, Jeong-in). 2006.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 추이.” (Ilje Gangjeomgi Hyanggyo-ui Byeondong Chui) 『한국민족운동사연구』(Hanguk Minjok Undongsa Yeongu) 47: 81-114.
- 김창숙 (Kim, Chang-sook) 2001. 『김창숙문존』(Kim Chang-sook Munjon). 서울 (Seoul): 성균관대출판부 (SKKU Press).
- 김태준 (Kim, Tae-jun). 1997. 『조선학문학사』(Joseonhak Munhaksa). 서울 (Seoul): 시인사(Siinsa).
- 류미나 (Ryu, Mi-na). 2010. “일본제국주의 하 유교이데올로기의 변용.” (Ilbon Jegukjuui Ha Yugyo Ideologie-ui Byeonyong)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Dongyang

- sahakhoe Haksuldaehoe Balpyononmunjip) 2010-2: 73-88.
- 류승완 (Ryu, Seung-wan). 2010. “한국 유교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불연속성.” (Hanguk Yugyo-e Natanan Jeontong-gwa Geundae-ui Bulyeonsokseong) 『유학연구』 (Yuhakyeongu) 23: 169-225.
- 민족문제연구소 (Minjok Munje Yeonguso). 2004. 『일제협력단체사전』(Ilje Hyeomnyeok Danche Sajeon). 서울 (Seoul): 민연 (Minyeon).
- 민족문제연구소 (Minjok Munje Yeonguso). 2008. 『친일인명사전』(Chinil Inmyeong Sajeon). 서울 (Seoul): 민연 (Minyeon).
- 박승호 (Park, Seung-ho). 1975. “북한향토지6: 함남 안변.” (Bukan Hyangtoji6: Hamnam Anbyeon) 『북한』(Bukan) 44: 182-185.
- 이용기 (Lee, Yong-gi). 2009. “일제시기 면 단위 유력자의 구성과 지역정치.” (Iljesigi Myeon Danwi Yuryeokja-ui Guseong-gwa Jiyeokjeongchi) 『대동문화연구』 (Daedong Munhwa Yeongu) 67: 37-85.
- 이정은 (Lee, Jeong-eun). 2010. “일본의 강제병합과 문화적 인종주의.” (Ilbon-ui Gangje Byeonghap-gwa Munhwajeok Injongjuui) 『일본연구』(Ilbonyeongu) 46: 87-102.
- 이종묵 (Lee, Jong-muk). 2005. “일제강점기 한문학 연구의 성과.” (Ilje Gangjeomgi Hanmunhak Yeongu-ui Seonggwa) 『한국한시연구』(Hanguk Hansi Yeongu) 13: 421-445.
- 임종국 (Lim, Jong-guk). 1985. 『일제하의 사상탄압』(Iljeha-ui Sasang Tanap). 서울 (Seoul): 평화출판사 (Pyeonghwa Chulpansa).
- 전봉관 (Jeon, Bong-gwan). 2005. “황군위문작가단의 북중국 전선 시찰과 임학수의 『전선 시집』.” (Hwanggunwimun Jakkadan-ui Bukjungguk Jeonseon Sichal-gwa Lim Hak-su-ui 『Jeonseonsijip』) 『어문논총』(Eomunnonchong) 42: 315-347.
- 정옥재 (Jeong, Wook-jae). 2008. “한말 · 일제하 유럽 연구.” (Hamal · Iljeha Yurim Yeongu)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Ph.D. Diss., Hangukhak Jungang Yeonguwon).
- 조동걸 (Cho, Dong-geol). 1989. 『한국근대사의 시련과 반성』(Hanguk Geundaesa-ui

- Siryeon-gwa Banseong). 서울 (Seoul): 지식산업사 (Jisik Saneopsa).
- 채수도 (Chae, Su-do). 2010. “초기 대동아공영권 구상에 관한 일고찰.” (Chogi Daedonga gongyeonggwon Gusang-e Gwanan Ilgochal) 『일본문화연구』(Ilbonmunhwa Yeongu) 35: 467-484.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Chinil Banminjok Haengui Jinsang Gyumyeong Wiwonhoe). 2009.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일제강점기 유학계의 친일협력과 친일한시-』(Chinil Banminjok Haengui Gwangye Saryojip-Ilje Gangjeomgi Yuhakgye-ui Chinil Hyeomnyeok-gwa Chinil Hansi-) 13. 서울 (Seoul): 선인 (Seonin).
- 한규무 (Han, Gyu-mu). 2011. “1920~1930년대 경남지역 면장배척운동의 전개와 성격.” (1920~1930nyeondae Gyeongnamjiyeok Myeonjang Baecheokundong-ui Jeongae-wa Seonggyeok) 『한국민족운동사연구』(Hangukminjokundongsa Yeongu) 68: 129-185.
- 한기형 (Han, Gi-hyeong). 1999.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Hanguk Geundae Soseolsa-ui Sigak). 서울 (Seoul): 소명출판 (Somyeongchulpan).
- 한길로 (Han, Gil-ro). 2012. “총동원시기 친일유림의 한시에 드러난 전쟁협력 논리.” (Chongdongwonsigi Chinilyurim-ui Hansi-e Deureonan Jeonjaeng Hyeomnyeok Noll) 『열상고전연구』(Yeolsang Gojeon Yeongu) 35: 167-198.
- 한길로 (Han, Gil-ro). 2013. “일제 말 친일유림의 일제 관료 칭송시에 드러난 총동원체제 찬양의 일면.” (Ilje Mal Chinilyurim-ui Ilje Gwallyo Chingsongsi-e Deureonan Chongdongwon Cheje Chanyang-ui Ilmyeon) 『한민족문화연구』(Hanminjok Munhwa Yeongu) 42: 515-549.
- 한용운 (Han, Yong-hun). 1973. 『한용운전집』(Han Yong-hun Jeonjip). 성남 (Seongnam): 신구문화사 (Singumunhwasa).

[자료]

경학원 (Gyeonghakwon). 『성전성시집』(Seongjeonseong Sijip).

동아경제시보사 (Donga Gyeongje Sibosa).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Joseon Eunhaeng Hoesa Johap Yorok).

동아일보사 (Dongailbosa). 『동아일보』(Donga Ilbo).

매일신보사 (Maeilsinbosa). 『매일신보』(Maeil Sinbo).

안변 유림 (Anbyeon Yurim). 『황군위문시』(Hwanggun Wimunsi).

이돈화(편) (Lee, Don-hwa eds.). 『개벽』(Gaebyeok).

조선총독부 (Joseonchongdokbu). 『조선총독부관보』(Joseonchongdokbu Gwanbo).

조선총독부 (Joseonchongdokbu).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Joseonchongdokbu geup Sosok Gwanseo Jikwonrok).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Local Confucians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Discourse of the Orient in Chinese Poetry:

Focusing on 『Hwang Gun Wi Moon Si (Imperial Army Encouragement Poem)』 by the An-byeon Confucian Scholars-

HAN Gil Ro
Ph.D. Candidate
Dongguk University

『Hwang Gun Wi Moon Si』 is the collection of poems all written in Chinese which the Confucian scholars spontaneously composed to encourage the imperial army which took part in the Sinjo-Japanese War in 1938 and prayed victory of them. The collection includes Chinese poems of 69 confucian scholars who were belonging to the An-byeon confucians, and all of them were composed by the style of Chinese verse with seven syllables to the line. The considerable number of confucian scholars who contained their poems had a career as a governor, a member of large regional assemble, a head of a township, a member of township assembly or a member of school evaluation assembly. Further more the considerable number of local worthies or influentials who were involved in various associations such as a financial association, irrigation association, and fruit association in their area also created a poem in the name of the An-byeon confucians. 『Hwang Gun Wi Moon Si』 which they left speak one aspect of pro-Japanese Chinese literature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which the pro-Japanese ideology and literal authority of Chinese classics were included by administrators and influentials of each area as literature of the aspect and surroundings of the literal world of the

Chosun Dynasty which shows an aspect of double writing in 'Japanese-Korean'.

Keywords Japanese Colonial Period, 『Hwang-Gun-Wi-Moon-Si (Imperial Army Encouragement Poem)』, Pro-Japanese Chinese Poems, Pro-Japanese Confucian Scholars, Total Mobilization System